

오피니언

월/요/광/장

한 희 원



언제부터였다. 오월이 오면 광주에 가려는 이팝나무의 눈부시게 하얀 꽃잎이 거리에 피어났다. 봄날 작은 바람이라도 부는 날이면 꽃잎은 은빛 눈물이 되어 사람을 가슴 위에 내려앉았다. 망월묘역으로 가는 길에 핀 이팝나무의 하얀 꽃잎도 어느덧 꿈이 되고 평화가 되고 그리움이 되어 오월의 꽃으로 피어 있다.

80년대에는 오동꽃이 한참 피었다. 지금도 보랏빛 오동꽃은 곳곳에 피어 있는데 그 꽃을 보고 있으면 하늘을 향해 하나 같이 일어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여린 보랏빛 꽃잎이 기립하여 서 있는 모습은 마치 민주와 자유, 그리고 평화를 노래하는 민초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뜨거움이 가슴을 치고 오른다.

나는 가끔 이팝나무의 눈부신 하얀색과 오동꽃의 보라색을 화폭에 섞으면 어떤 색이 될까 상상해 보았다. 아마 자식을 먼저 보내고 가슴을 열어 보면 검게 타다 이제는 한 필죽도 보이지 않는 어머니의 한과 그리움의 색이라 생각해 보았다.

머칠 전 예술의 거리를 걷다 들른 전시장에서 가슴이 울려대던 적이 있었다. 광주가 아닌 타지역 출신인 김은주라는 사진작가 작품이었는데, 오월 어머니들이 아픈 한을 남긴 장소에서 찍은 사진을 모은 전시회였다.

피카소, 폴 엘뤼아르, 그리고 광주

사랑하는 자식과 남편을 보내고 다시는 눈길 한번 주지 않는 그곳을 배경으로 서 있는 어머니들의 모습은 나도 모르게 눈시울을 지게 하였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저항, 평화, 인권의 모든 단어를 함축시킨 절절한 한의 노래였다.

나는 이러한 오월의 문화가 광주 출신이 아닌 타지역 작가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세계적으로 저항, 자유, 인권, 평화의 역사를 상징하는 시민운동으로 기록되었으나 이 정신을 계승 확

산하고 그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이제는 작품을 통한 감동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가 생각된다.

20세기 유럽의 전쟁과 파괴의 시대에서 저항과 자유, 평화를 꿈꾸고 기록했던 화가 파블로 피카소와 시인 폴 엘뤼아르는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상징이 될 수 있다 하겠다.

“내 학생 때의 공책 위에/ 내 작은 책상과 나무들 위에/ 모래 위에 눈 위에/ 나는 쓴다 그때 이름을/ 내가 읽은 모든 페이지 위에/ 모든 백지 위에/ 홀과 파괴 종이, 또는 재 위에/ 나는 쓴다 너의 이름을” 이라고

고 자유를 노래했던 폴 엘뤼아르의 시를 보자.

1936년 스페인 내란 발발 당시 인간의 파괴와 전쟁의 비참함을 그린 피카소의 ‘게르니카’라는 작품은 예술가의 작품이 역사적 진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적으로 전해주는가를 볼 수 있다.

‘게르니카’라는 작품을 통해 게르니카에서 일어난 일들을 잊지않고 기억하는 것처럼 80년 5월의 광주에서 일어난 민주주의에 대한 항거와 시민공통체 대동정신

은 위대한 작품으로 승화되어 영원히 남아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까지 30여년간 방치되었던 작품들을 더 이상 손상되고 잊혀지기 전에 한 곳으로 모아 전시보존하는 공간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다. 시민들도 봉크의 ‘질규’를 사랑하는 노르웨이 시민들처럼 절규하는 시대의 아픈 그림들도 느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시민과 함께하지 않는 문화는 공허하기 때문이다.

30년 전부터 이러한 작품을 해왔으면 지금쯤 세계적인 인권, 자유, 평화를 상징하는 미술관 하나쯤은 있을 법한데 세계적인 비엔날레가 열리는 미술의 도시에 이러한 미술관이 없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다.

올해도 광주에서는 5월 관련 문화 행사가 진행됐다. 새롭게 시도된 평화 연극제, 80년 당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직접 노래한 이들이 참여한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공연, 뮤지컬 ‘화려한 휴가’ 등. 이러한 작품들이 해마다 더욱 견고하게 창작되어 그것이 감동으로 남는 작품이 되길 기대해 본다. 그것이 광주정신을 세계인에게 보여주는 길이 될 것이다. 피카소의 ‘게르니카’처럼... (화가)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조칼럼



하재욱

지금도 없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갓 임관한 초임 검사는 처음 몇 개월 동안 고참 검사실에서 근무하며 선배 검사로부터 수사기법이나 업무처리 방법을 배워야 하고 그 기간이 끝난 후에서야 독립을 하게 하는 제도가 있었다. 고참 검사는 초임 검사에게 일종의 멘토 역할을 하게 되는데, 업무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검사로서의 품행이나 민원인들을 대하는 태도 등 법집이나 교과서에서는 배울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을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었다.

검사의 말

날 무기명의 제보가 들어왔다. 지자체의 고위 공무원이 비리의혹이 있으니 수사를 해달라는 것이었는데, 구체적인 비위사실도 적혀 있지 않고 그저 막연한 내용뿐이었다. 그냥 무시하고 종결할까 하다가 혹시나 싶어 확인을 하던 과정에서 단서가 포착되었고, 그때부터 약 한 달간 의도했던 대로 수사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마지막 조사를 마치면서 그 공무원을 보고 있노라니, 공무원으로 정년 퇴직한 아버지 얼굴이 떠오르며 인간적으로 애잔한 점이 들었다. 그 사람이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형사처벌을 받으며 불명예 퇴장을 해야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위로를 해 주고 싶은 마음에 “제 부친께서도 공무원 정년퇴직을 하셨습니다. 참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안 좋습니다”라는 말을 해주었고, 며칠 후 기소를 했다.

얼마 후 그 공무원은 재판을 받으며 재판

장에게 탄원서를 제출했다. 차기 지자체장 선거에서 유력한 후보인 자신을 배제시키기 위해 지청장과 현직 지자체장이 서로 짜고 한 정치수사의 희생자라는 항변과 더불어 담당 검사가 공무원이었던 아버지 생각이 나 불기소 처분을 하려 했는데 위에서 지시를 하여 어쩔 수 없이 기소를 하게 되었다며 실토를 했다는 내용이었다.

한순간 정치 검사로 전락해 버린 지청장에게 어찌나 미안하고, 그걸 그렇게 받아들인 그 사람은 또 어찌나 아송하던지, 식사를 마친 후 뽕빵 그릇을 신문지에 싸고 있는 초임 검사에게 한마디 덧붙였다. “네가 검사실에서 하는 말들은 담당의 사가 암 투병 중인 환자에게 건네는 말보다 더 무심다네, 말 한마디 내 뱉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 봐, 상대방 입장에서. 그 초임 검사는 지금은 멋진 중견 검사가 됐다. 그 공무원에게 내가 했던 말이 잘못된 것이었을까 아직도 잘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했던 말은 그 사람에게겐 감정을 가진 개인의 말이 아닌 검사의 말이었다는 것이다.”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기고



김재철

광주에 미소금융 지역지점이 문을 연지 1년 반이 되어 간다. 미소금융은 소득과 신용이 낮은 사람들이 자영업을 통해 자활하려는 경우에 자금을 지원하는 소액신용대출(Micro finance)을 해주는 곳이다.

방글라데시의 빈곤타파를 위해 유누스 교수가 설립한 그라민뱅크가 그 모델이다. 지역지점이 개설된 이후 광주에는 기업과 은행의 미소금융재단 지점이 5개 개설되고 전남에서는 4곳이 설치됐다.

이렇게 개설된 미소금융 지점은 소기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가?

먼저 MB정부가 금융소비계층을 위해 시행한 미소금융, 햇살론, 희망플러스 대출은 이 자율이 높은 사채나 대부업에 의존할 수밖에

미소금융 성과와 과제

없었던 서민들에게 대출 문턱을 낮추었다고 본다. 희망플러스 대출과 햇살론은 기존은행과 제2금융권을 활용하여 사업자금과 생계자금까지도 지원함으로써 긴급자금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됐다. 올해에도 3조원에 이르는 자금이 대출됨으로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미소금융의 경우 휴면예금과 기부금을 재원으로 지역지점과 기업·은행재단의 새로운 조직을 통해 자영업자에 대해 연간 2000억원 규모로 지원함으로써 다른 서민금융정책과 비교할 때 그 규모는 훨씬 작다. 또 신용도가 낮은 대상자에게 신용보증서 등이 없이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대출금의 부실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들로 인해 수혜를 받지 못한 경우가 더 많다. 미소금융의 문을 두드리려는 사람은 전국적으로 1400명에 1300여원을 대출했지만 아직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하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소금융의 지원으로 사업을 통해 자활하고 있는 많은 사례는 미소

금융제도의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외국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높고 대형할인점들과 경쟁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은 모두가 잘 알고 있다. 자영업자가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축이며 중산층을 대변하고 있는데도 중산층이 붕괴되고 있음이 우리사회의 문제이자 미소금융의 추진배경이다.

미소금융이 시작된 지 오래지 않아 성급한 판단을 할 수 없지만 수혜자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성공 모델로 커지고 있는 이유는 미소금융의 사업방식이 있다고 본다. 다른 금융회사들과는 달리 미소금융은 자금 지원에 앞서 창업교육을 하고 컨설팅을 받도록 하며 사업 후에는 월 1회 현장방문을 통한 지도·지원과 다방면의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는 사업에 대한 자신감과 노하우를 제공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자금지원만 하는 것에 비해 성공가능성을 크게 높이고 있다.

인도에 시설물·입간판 우후죽순...보행권 법적 보장을

지난해 길을 걷다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이 2500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 가운데 1750여명이 중소도시와 시골에서, 나머지 750여명은 비교적 인도가 잘 설치된 대도시에서 사고를 당했다.

이 같은 이유는 도로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가 보행자지만 이를 보호할 안전 장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 경우 전담복도 예외는 아니다. 필자는 회사 업무 때문에 지방 출장이 잦

다. 그런데 전남북의 지방 국도를 달리다 보면 아예 인도가 없다. 아마도 90% 이상의 국도에 인도가 없을 것이다. 결국 보행자들은 길을 걸을 때마다 차도의 가장자리를 넘나들면서 아슬아슬한 공예를 벌여야 한다.

대도시의 인도 역시 마찬가지다. 보행자들은 인도를 걸을 때마다 번잡이나 분전함 등 각종 시설물과 무질서한 입간판에 부딪히고 방해받기 일쑤다. 오토바이는 인도 위

를 무섭게 질주한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 약자들에게는 더욱 위험하다. 대도시 교통사고 사망자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보행자라고 하니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일이다.

이제는 보행권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교통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자동차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참고로 미국의 학교 버스들은 정차하면 차단장치가 내려와 횡단보도를 건너는 학생을 보호하도록 설계돼 있다. 정차 중인 학교 버스를 추월하는 것도 법으로 금지돼 있다.

우리로 하루빨리 교통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와 시설을 갖춰야 할 것이다. ▲윤용숙·광주시 서구 벽진동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 팩스 062-222-4918 이메일 opinion@kwangju.co.kr

시설

대학 등록금 대폭 인하 반드시 실현돼야

여권이 대학 등록금의 대폭 인하를 추진한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의 대선 공약인 ‘반값 등록금’ 문제를 6월 국회에서 논의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중위 소득자(소득구간 하위 50%) 자녀까지 소득구간별로 대학 등록금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안이 어떤 정치적 배경에 의해 갑작스럽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환영한다.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은 ‘인골탑(人骨塔)’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서민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연간 1000만 원에 육박하는 등록금 수준은 OECD 국가 중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다. 지난 10년간 경제위기 때 잠깐 빠지고 매년 5~10%씩 올라 60%~84%가 급증했다. 대학 등록금이 학부모와 학생의 생존권과 교육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것이다.

문제는 엄청난 재원이다. 여권 방안대로 반값 등록금 대상은 소득구간 하위 50%로 할 경우 2조5천억 원 안팎의 재원이 소요된다. 한나라당은 이를 추가감세 철폐, 세계잉여금,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추가감세 철폐 문제는 한나라당 내에서조차 논란이 되고 있는 등 실현 가능성이 미지수다. 확실한 재원 마련 방안이 없으면 등록금 대폭 인하는 또다시 ‘립서비스’에 그칠 것이다. 또한 강도 높은 대학 개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등록금 대폭 인하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 대학 예산의 대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현금을 쌓아놓고도 등록금만 올리려는 대학 행태의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학 반값 등록금’은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

한나라당은 이번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등록금에 허리가 휘는 국민과 학생들이 지켜볼 것이다. 지난 대선 때의 ‘반값 등록금’처럼 공약(空約)이 돼선 여권의 미래는 없다.

문제는 엄청난 재원이다. 여권 방안대로 반값 등록금 대상은 소득구간 하

위 50%로 할 경우 2조5천억 원 안팎의 재원이 소요된다. 한나라당은 이를 추가감세 철폐, 세계잉여금,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추가감세 철폐 문제는 한나라당 내에서조차 논란이 되고 있는 등 실현 가능성이 미지수다. 확실한 재원 마련 방안이 없으면 등록금 대폭 인하는 또다시 ‘립서비스’에 그칠 것이다. 또한 강도 높은 대학 개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등록금 대폭 인하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 대학 예산의 대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현금을 쌓아놓고도 등록금만 올리려는 대학 행태의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학 반값 등록금’은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

한나라당은 이번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등록금에 허리가 휘는 국민과 학생들이 지켜볼 것이다. 지난 대선 때의 ‘반값 등록금’처럼 공약(空約)이 돼선 여권의 미래는 없다.

취포리 사회복지예산, ‘지방죽이기’ 아닌가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한 사회복지비가 3년간 31.4%나 늘어 지방재정 악화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광주시는 서울과 6대 광역시 가운데 사회복지비 지출 규모가 부산(28.5%), 대구(28.0%), 인천(27.1%), 서울(23.4%)보다 훨씬 높은 32.1%나 돼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광주시의 경우 사회복지비 지출의 핵심인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지난 2000년 4만9954명으로 인구 대비 3.6%였으나 2007년 4.3%, 지난해 4.5%(6만5195명)로 매년 2500명 가량 증가 추세에 있다. 전남도는 인구 유출로 인해 수급자 수는 줄었으나 여전히 그 비율이 5.4%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광주시의 사회복지예산은 6900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32.0%에 달하며 이는 지난 2009년보다 무려 1100억 원이 늘어난 것이다. 전남도 역시 수급자에게 지급한 최저생계비 예산

만도 2677억 원에 이른다. 따라서 광주시와 전남도의 자율 경영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복지비는 매년 크게 늘고 있으나 국비 보조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지방재정의 심각성은 현 정부의 지방 확대가 직접적 요인이다.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라 지방에 내려보내는 교부금이 대폭 줄었고 정부가 맡아야 할 사회복지비 지출을 지방에 떠넘겨 그만큼 부담이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먼저 지방재정 위기 시스템을 가동하면서 교부금 지원을 늘리고 사회복지비 지출을 환원시키는 방안부터 찾아야 한다. 또 지자체의 재정상태에 따라 국세의 일부를 지방에 할애하는 차등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무관심으로 일관해온 지역 정치권도 타 지방과 연대해 지방재정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 언제까지 현 정부의 ‘지방 죽이기’를 두고만 볼 것인가.

無 等 鼓

늘 우리 곁에 있지만 관심을 쏟지 않으면 볼 때마다 헛갈리는 것들이 적지 않다. 만화방창(萬化方窗)한 봄날 ‘날 좀 보소’ 앞다투고 고개를 내미는 키 작은 꽃망울이 그렇다. 눈도 맞추고 향기도 맡아 보지않고 일일이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풀이 많다. 산나물과 독성이 있는 풀을 가려내는 것도 마찬가지다.

남도의 봄을 화려하게 수놓는 진달래과의 꽃들도 사람들을 흥동에 빠뜨린다. 진달래와 철쭉, 영산홍이 그 것이다. 꽃 모양이나 색깔만으로는 구분하기 어려운 탓이다.

식물도감 등에서 제시하는 일반적인 구분법은 이렇다. 진달래는 양상한 가지에 꽃이 먼저 피고, 꽃이 지면 새싹이 나온다. 철쭉은 잎이 먼저 나온 뒤 꽃이 핀다. 개화기는 보통 진달래가 4월, 철쭉은 5월이다. 꽃 가운데 깨알 같은 검은 반점과 꽃받침을 만졌을 때 달래가 뾰족한 타원형이고 광택이 있지만, 철쭉은 둥근 편이다. 단맛이 나는 진달래는 먹을 수 있어 예로부터 잡초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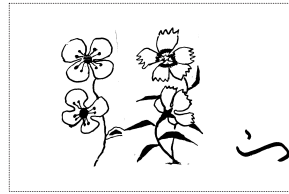
라고 불렸지만, 철쭉은 먹을 수 없어 개꽃이라 했다.

설명을 들으면 고개가 끄덕여지지만 이들 꽃이 한꺼번에 피어있는 시절이면 쉬갈라지는 매한가지다. 그나마 산철쭉과 자생 영산홍을 구분하는 기준은 명확치가 않다. 꽃망울의 천연한 향연 속에서 겪는 이런 헛갈림은 흥황한 혼동이다.

그러나 온갖 꽃들이 때를 가리지 않고 일시에 피어내는 것은 상황에 좀 다르다. 국립수목원에 따르면 올해는 3~4월에 피는 봄꽃이 예년에 비해 10~20일이나 늦게 핀 반면, 상당수 5~6월 개화준은 그 시기가 되려 빨라졌다. 그러다 보니 여러

꽃이 한꺼번에 뒤섞여 피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이상기후 탓이다. 개화(開花) 질서의 붕괴는 벌과 나비 같은 검은 반점과 꽃받침을 만졌을 때 달래가 뾰족한 타원형이고 광택이 있지만, 철쭉은 둥근 편이다. 단맛이 나는 진달래는 먹을 수 있어 예로부터 잡초이

/정후서 정경부장 who@kwangju.co.kr



개화(開花) 질서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일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권매매부 2200-621	광고기획국 227-9600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고미케팅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전산부 2200-68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